

2024년 6월 17일 배포용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종교와 영성(靈性)

홍콩, 일본, 한국, 대만 및 인근 베트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고 조상의 영혼을 숭배하며 종교의식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작성: 조나단 에반스(Jonathan Evans), 앨런 쿠퍼맨(Alan Cooperman), 켈시 조스타(Kelsey Jo Starr), 마놀로 코리치(Manolo Corichi), 윌리엄 마이너(William Miner), 커스틴 르세이지(Kirsten Lesage)

미디어 또는 기타 문의:

선임연구원 조나단 에반스(Jonathan Evans)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악사 칼라한(Achsah Callahan)

202.419.4372

www.pewresearch.org

권장 인용문

2024년 6월 Pew Research Center,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종교와 영성(靈性)'

Pew Research Center 소개

Pew Research Center는 세상을 구성하는 이슈, 속성, 트렌드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객관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팩트탱크로, 정책적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본 Center는 여론조사, 인구통계적 연구, 계산을 통한 사회과학 연구, 기타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수행하며, 정치와 정책, 뉴스 습관 및 미디어, 인터넷과 기술, 종교, 인종과 민족성, 국제 문제, 사회적, 인구통계적, 경제적 트렌드, 과학, 연구 방법론 및 데이터 과학 및 이민과 이주에 관하여 연구합니다. Pew Research Center는 주 설립자인 The Pew Charitable Trusts의 자회사입니다.

© Pew Research Center 2024

조사 방법

본 보고서 작성하기 위해 당사는 동아시아 및 인근 베트남 지역의 성인 10,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지의 조사자가 7개 언어로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홍콩, 일본, 한국, 대만의 4개 지역에서는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베트남에서는 대면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The Pew Charitable Trusts 및 John Templeton Foundation에서 Pew Research Center가 종교의 변화 및 그러한 변화가 전세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폭넓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Pew-Templeton Global Religious Future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후원했습니다.

Center에서는 과거 종교에 초점을 맞춘 설문조사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및 [대규모 이슬람교도 집단](#)이 속한 다양한 사회, [라틴 아메리카](#), [이스라엘](#), [중부 유럽 및 동유럽](#), [서유럽](#), [인도](#),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및 [미국](#)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설계할 때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질문이 문화적으로 적절할 것인지 및 응답자가 질문의 의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했으며, 아시아 지역의 종교에 관한 학술 전문가인 자문단과 상의했습니다. 일본과 대만에서는 인지적 인터뷰를 수행했습니다. (인지적 인터뷰에서 응답자는 질문을 소리내어 읽고 질문에 답하며,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전체 설문조사의 설문지도 실시하기 전에 다섯 개 지역 모두에서 사전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본 설문지는 영어로 작성되어 6개 언어 즉, 광둥어, 민남어, 일본어, 한국어, 표준 중국어 및 베트남어로 번역되었고, 원어민 수준의 언어 전문가들이 번역을 독립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신”을 믿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번역가는 각 언어에서 신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특정 종교의 신이나 여신을 독점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는 피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응답자는 확률 기반 표본 설계를 사용해 선정되었습니다. 데이터는 다양한 선정 확률을 설명하고 성인 모집단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기준에 맞게 가중치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설문조사가 나이, 성별, 교육의 측면에서 더 넓은 의미의 대중을 대표하도록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방법론 섹션](#)(영어) 및 [전체 설문조사 설문지](#)(영어)를 참조하십시오.

감사의 말

이 보고서는 Pew-Templeton Global Religious Future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Pew Research Center에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서는 종교의 변화 및 그러한 변화가 전세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Global Religious Futures 프로젝트의 자금은 Pew Charitable Trusts 및 John Templeton Foundation(승인번호 62287)에서 지원합니다.

관련 온라인 보고서는 pewresearch.org/relig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 인물의 의견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협업의 산물입니다.

연구팀

선임연구원 조나단 에반스(Jonathan Evans)
종교 연구 이사 앨런 쿠퍼먼(Alan Cooperman)
연구 분석가 켈시 조 스타(Kelsey Jo Starr)
연구 분석가 마놀로 코리치(Manolo Corichi)
연구 보조원 윌리엄 마이너(William Miner)
연구원 커스틴 르세이지(Kirsten Lesage)

방법론 팀

국제연구방법론 분야 부이사 패트릭 모이니한(Patrick Moynihan)
국제 설문조사 방법론 담당자 캐롤린 라우(Carolyn Lau)
국제 설문조사 방법론 담당자 소피 시노지치(Sofi Sinozich)

편집 디자인 및 그래픽 디자인

선임 작가/편집자 달리아 파미(Dalia Fahmy)
카피 에디터 레베카 레퍼트(Rebecca Leppert)
선임 인포그래픽 디자이너 빌 웹스터(Bill Webster)

커뮤니케이션 및 웹 퍼블리싱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악사 칼라한(Achsah Callahan)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가르 멩 령(Gar Meng Leong)
커뮤니케이션 보조원 미틸라 사막(Mithila Samak)
디지털 프로듀서 보조원 저스틴 콜먼(Justine Coleman)
커뮤니케이션 부이사 안나 쉴러(Anna Schiller)
디지털 전략 이사 스테이시 로젠버그(Stacy Rosenberg)

그 외 Center에서 네하 사갈(Neha Sahga), 콘래드 해킷(Conrad Hackett), 윤핑 통(Yunping Tong), 앤 핑양 시(Anne Fengyan Shi), 크리스틴 황(Christine Huang), 그레고리 A. 스미스(Gregory A. Smith), 로라 실버(Laura Silver), 베카 A. 알퍼(Becka A. Alper), 제프 디아만트(Jeff Diamant), 드류 드실버(Drew DeSilver), 그레이시 마르티네즈(Gracie Martinez), 로라 루이스(Laura Lewis)가 이 보고서에 기여했습니다.

Center의 이전 직원인 아리아나 모니크 살라자르(Ariana Monique Salazar), 아담 월스키(Adam Wolsky), 클라크 레터맨(Clark Letterman), 스캇 가드너(Scott Gardner), 알렉산드라 카스티요(Alexandra Castillo), 옴카르 조시(Omkar Joshi), 마크 왕(Mark Wang), 라번 아체암퐁(Laverne Acheampong)이 이 보고서에 기여했습니다.

Center는 이 보고서의 모든 단계에서 지침을 제공한 다음 전문가 자문단에 감사드립니다. 아카데미아 시니카(Academia Sinica) 사회학연구소 소속 연구보조 펠로우 위 셴 치(Wei-Hsian Chi), 하버드대학교 리샤워(Harvard University Reischauer) 연구소 소속 일본 종교 및 사회 연구교수 헬렌 하더커(Helen Hardacre), 페퍼다인대학교(Pepperdine University)의 인문학 및 교육학 Blanche E. Seaver 교수 투안 호양(Tuan Hoang),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사회학과 교수 및 설문조사센터 이사 김지범(Jibum Kim), 오克兰드대학교(University of Auckland) 일본학 교수 마크 R. 멀린스(Mark R. Mullins),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 종교학 및 사회학 부교수 안나 선(Anna Sun),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 종교 및 글로벌 이스트(Global East) 센터 이사 핑강 양(Fenggang Yang)

설문조사의 현장 조사는 Langer Research Associates 및 D3 Systems의 안내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분석은 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나, Pew Research Center는 데이터의 해석 및 보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종교와 영성(靈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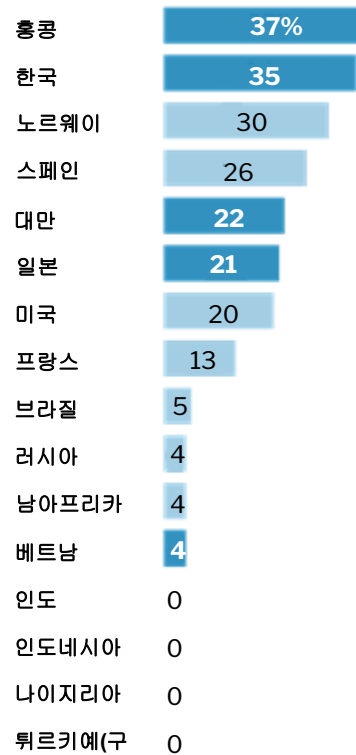
홍콩, 일본, 한국, 대만 및 인근 베트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고 조상의 영혼을 숭배하며 종교의식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종교색이 덜한 지역처럼 보입니다. 매일 기도하거나 종교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동아시아 성인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동아시아와 인근 베트남의 10,000명이 넘는 성인을 대상으로 새롭게 실시한 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교 이탈(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의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 전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종교적 또는 영적 믿음을 유지하고 전통적 종교의식에 참여합니다.

특정 지역과 비교한 동아시아와 베트남에서의 종교 이탈

어릴적 종교를 이탈하여 더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각 지역 성인의 비율(%)



참고: 2008년부터 Pew Research Center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102개 지역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과거 설문조사의 결과치는 일반적으로 지역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전체 102개 지역의 데이터 및 분석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 후반의 “세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한 동아시아에서의 종교 전환”에 나와 있습니다.

출처: 2008년에서 2023년 사이에 수행한 설문조사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종교와 영성(靈性)”

PEW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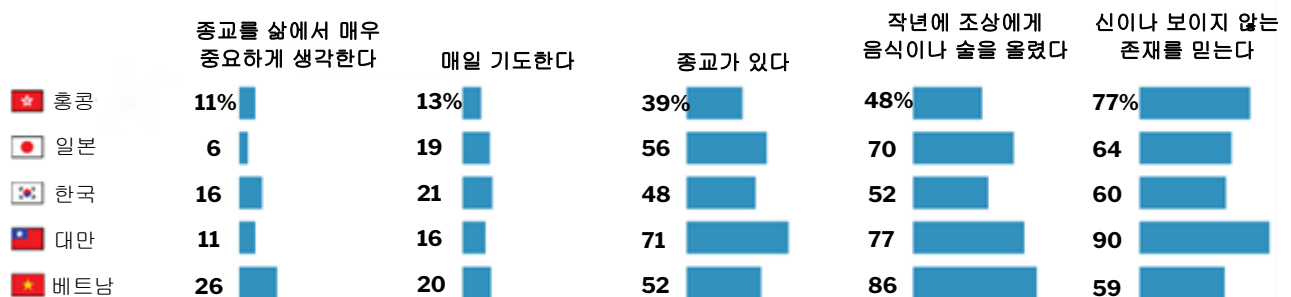
- 홍콩,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성인의 대다수는 신 또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기반의 조상숭배 의식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70%가 지난 12개월 동안 자신들의 조상을 기리거나 보살피기 위해 음식이나 물, 음료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86%가 작년에 이러한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 종교적 인물이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의를 표하는 것은 상당히 흔합니다. 예를 들어, 홍콩의 성인 30%는 측은지심과 관련이 있는 신인 관음보살에게 기도하거나 경의를 표한다고 하고, 대만의 성인 46%는 부처에게 기도하거나 경의를 표한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 전반에서 다수 즉, 대만의 27%부터 홍콩의 61%에 이르는 성인들이 스스로를 “무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교인들 중에서 조차도, 절반 이상은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고, 열명 중 적어도 4명은 신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고 있으며, 4분의1 이상이 산이나 강, 나무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간단히 줄이자면, 이들 사회의 종교를 사람들이 본인의 종교가 있다고 말하는지 여부보다는 사람들이 믿고 행하는 것으로 측정할 때, 해당 지역은 처음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종교적으로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종교를 삶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아시아인은 거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습니다.

본인이 다음을 한다고 말하는 각 지역 성인의 비율(%)



참고: 응답자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조상을 기리거나 보살피기 위해 음식, 물, 음료를 바쳤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응답자들에게 신을 믿는지, 아니면 세상에 신이나 영혼과 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별도로 질문했습니다. “신”은 특정 종교의 신이나 여신을 언급하지 않고 가능한 한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각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출처: 2023년 6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아시아 5개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세한 내용은 방법론을 읽어보십시오.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종교와 영성(靈性)”

PEW RESEARCH CENTER

동아시아에서 [종교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종교의 개념](#)은 대략 1세기 전에야 지식인들이 해당 지역에 들어왔으며 “종교” (중국어로 [종지야오 \(zongjiao\)](#), 일본어로 [슈쿄 \(shūkyō\)](#), 한국어로 [종교 \(jonggyo\)](#))의 일반적인 번역어는 조직화 및 계층화된 종교의 형태, 즉 아시아 지역의 전통적인 영성이 아닌, 기독교나 신흥 종교 운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종종 이해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종교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와 같이 세계 다른 지역의 종교 의식을 측정하는 데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몇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는 아시아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신념과 실천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질문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상 숭배](#), [자연계에 영혼의 존재](#), [신과 종교적 인물에 경의를 표함](#),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정체성을 제외한 [종교와의 개인적 연관성](#).개인적 연관성.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4개 사회(홍콩, 일본, 한국, 대만)와 인근 베트남의 성인 10,390명을 대상으로 한 주요 지역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2023년 6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7개 언어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Pew Research Center가 이전에 [중국](#), [인도](#),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종교에 대해 발표한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개요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해당 지역의 종교 전환](#) | [세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한 동아시아에서의 종교 전환](#) | [일반적인 믿음과 실천](#) | [동아시아에서 불교인이었던 사람과 평생 불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 | [그 외 이 보고서의 중요한 결과](#)

영어로 제공되는 전체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장: [종교적 지형과 변화](#)
- 2장: [삶의 방식으로서의 종교](#)
- 3장: [믿음](#)
- 4장: [실천](#)
- 5장: [조상 숭배, 장례 및 사후 세계 믿음](#)
- 6장: [종교, 정치 및 사회](#)

동아시아를 정의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동아시아는 중국, 홍콩, 일본, 마카오, 몽골, 북한, 한국, 대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베트남은 종종 동남아시아의 일부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중국 및 유교 전통과의 역사적 연관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동아시아와 함께 베트남을 조사했습니다. 더욱이, 베트남의 불교인들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불교(대승 불교)를 실천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동아시아”라는 용어는 홍콩, 일본, 한국, 대만을 의미합니다.

그보다 더 넓은 “지역” 전반의 추세를 논의할 때는 베트남이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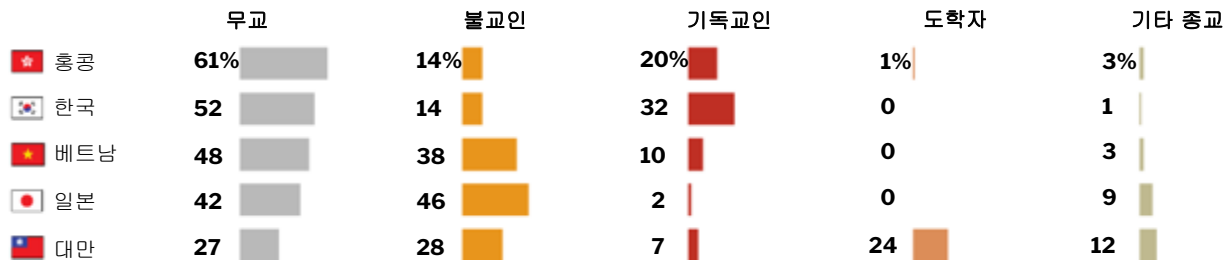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의 일부로 간주되는 다른 여러 지역은 법적 및 물류상의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은 중국계가 아닌 단체가 본토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여론조사가 불가능합니다. 몽골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거주인의 대다수가 유목을 하는 생활 방식으로 인해 어렵습니다. 마카오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의 종교적 전환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대부분 사람들은 무교이거나 불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홍콩에서는 상당수의 성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답했으며, 대만에는 상당수의 도학자가 있습니다.¹

홍콩, 한국, 베트남에서 가장 흔한 종교는 '무교'입니다.

현재 본인이 다음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각 지역 성인의 비율(%)



참고: “기타 종교”에는 “이슬람교”, “유교”, “지역 신앙/토속 종교”, “여러 종교의 조합”, 일본에서는 “신도”를 선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모름/거절”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2023년 6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아시아 5개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세한 내용은 방법론을 읽어보십시오.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종교와 영성(靈性)”

PEW RESEARCH CENTER

¹ 베트남의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86%가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당사의 조사에서 종교가 없는 베트남 성인의 48%보다 훨씬 더 큰 비율입니다. 베트남의 인구 조사에서는 당사가 측정할 것(성인의 38%)보다 불교인의 비율(전체 인구의 5%)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 조사에서 불교인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베트남 불교 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들뿐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종교적 정체성은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다고 말합니다.

본인의 종교적 성장 환경에서 다른 종교로 전환하거나 무교로 전환한 비율은 베트남 성인의 경우 17%, 홍콩과 한국의 경우 각각 53%에 이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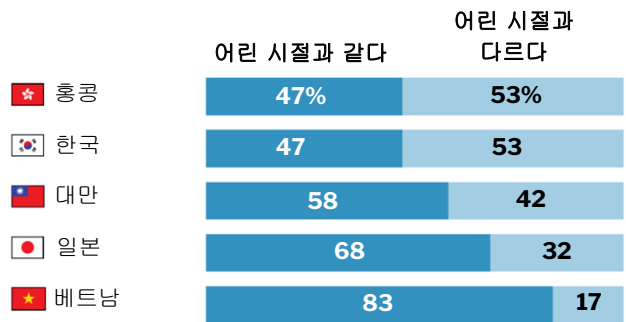
(이러한 이동이 전방위로 진행되며 반드시 공식적인 의식이나 의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 “개종”이라는 용어 대신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종교 전환 비율은 종교 *내*에서의 전환이 아닌 세계 주요 종교 전통 *사*에서의 이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와 불교 사이의 전환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전환으로 간주되지만,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 또는 이슬람교의 여러 종파 사이의 전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종교에서 무교로 이동했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전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홍콩과 한국 성인의 53%가 어린 시절 이래로 종교적 정체성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본인의 종교적 정체성이 다음과 같다고 말하는 각 지역 성인의 비율(%)



참고: 이 분석에서는 다음 범주 간의 전환, 즉 기독교인, 이슬람교도, 유대교인, 불교인, 힌두교인, “기타 종교”, “무교” 및 질문에 답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전환을 측정합니다.
출처: 2023년 6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아시아 5개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세한 내용은 방법론을 읽어보십시오.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종교와 영성(靈性)”

PEW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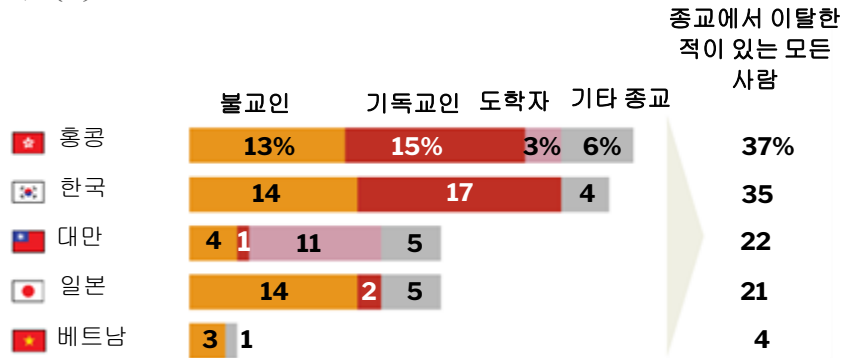
전환의 대다수는 이탈입니다.

많은 동아시아인들은 어린 시절에 특정 종교를 믿고 자랐으며 **지금은 종교적 정체성이 없다**고 말합니다(이런 일은 인근 베트남에서는 훨씬 덜 일반적입니다.)

출발은 대부분 불교, 기독교, 도교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성인의 15%는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성장했지만 현재는 종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성인의 14%는 불교도로 자랐지만 더는 어떤 종교의 정체성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동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불교인으로 자랐습니다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지만 현재는 무교라고 말하는 각 지역 성인의 비율(%)



참고: 이 차트의 “기타 종교”에는 이슬람교도, 유학자, 지역 신앙 또는 토속 종교나 여러 종교의 조합 또는 기타 종교 신봉자, 어린 시절의 종교를 밝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린 시절 “신도” 환경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반올림으로 인해 표시된 소계에 수치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2023년 6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아시아 5개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세한 내용은 방법론을 읽어보십시오.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종교와 영성(靈性)”

PEW RESEARCH CENTER

그러나 높은 종교 전환 비율은 단지 종교를 포기하는 사람들에게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12%)과 홍콩(9%)의 성인 대략 10명 중 1명은 현재는 기독교인이지만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 전통에서 자랐거나 종교적 정체성 없이 자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만 성인의 11%, 베트남 성인의 10%는 불교 외 환경에서 자랐지만 현재는 불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대상 지역 중 4곳에서 무교 인구는 전환에서 순증을 보였는데, 이는 분석 시 다른 모든 종교 집단에서 끌어온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는 성인의 30%가 종교 없이 자랐다고 답변 반면, 현재 61%는 무교라고 답하여 31포인트 증가를 보였습니다.

베트남은 종교 전환으로 인해 무교 인구의 순감을 보인 유일한 설문조사 대상 지역입니다. 베트남 성인의 55%는 자신이 종교 없이 자랐다고 말하고, 48%는 현재 무교라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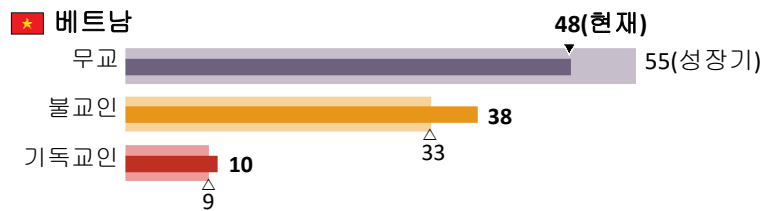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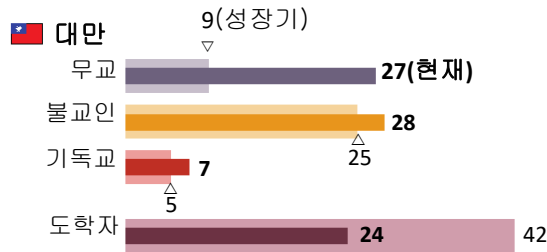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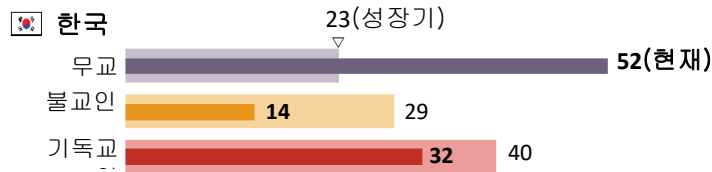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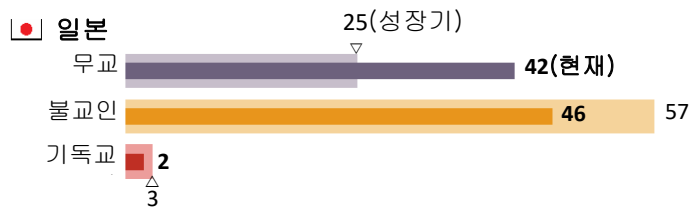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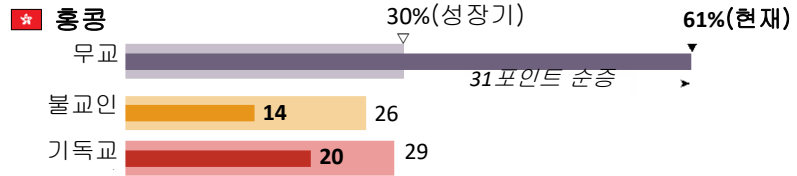
한편, 불교인들은 홍콩, 일본, 한국에서 종교 전환으로 인해 순감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성인의 29%는 자신이 불교인으로 자랐지만, 현재 불교인이라고 답변 비율은 14%로 15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대만과 베트남에서는 종교 전환으로 인해 불교인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1장의 종교 전환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불교는 홍콩, 일본, 한국에서 “종교 전환”으로 신자들을 잃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각 종교 집단에서 성장했으며 현재도 해당 종교 집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각 지역 전체 성인의 비율(%)



출처: 2023년 6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아시아 5개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세한 내용은 방법론을 읽어보십시오.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종교와 영성(靈性)”

PEW RESEARCH CENTER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한 동아시아의 종교 전환

동아시아의 종교 전환 비율(일본의 32%, 홍콩과 한국의 53%)은 Pew Research Center가 다른 여러 지역에서 측정한 것보다 높습니다.² 예를 들어,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이 포함된 [2019년 이후 아시아 전역의 종교에 대한 이전 설문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종교 전환 비율](#)(35%)만이 동아시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비율에 근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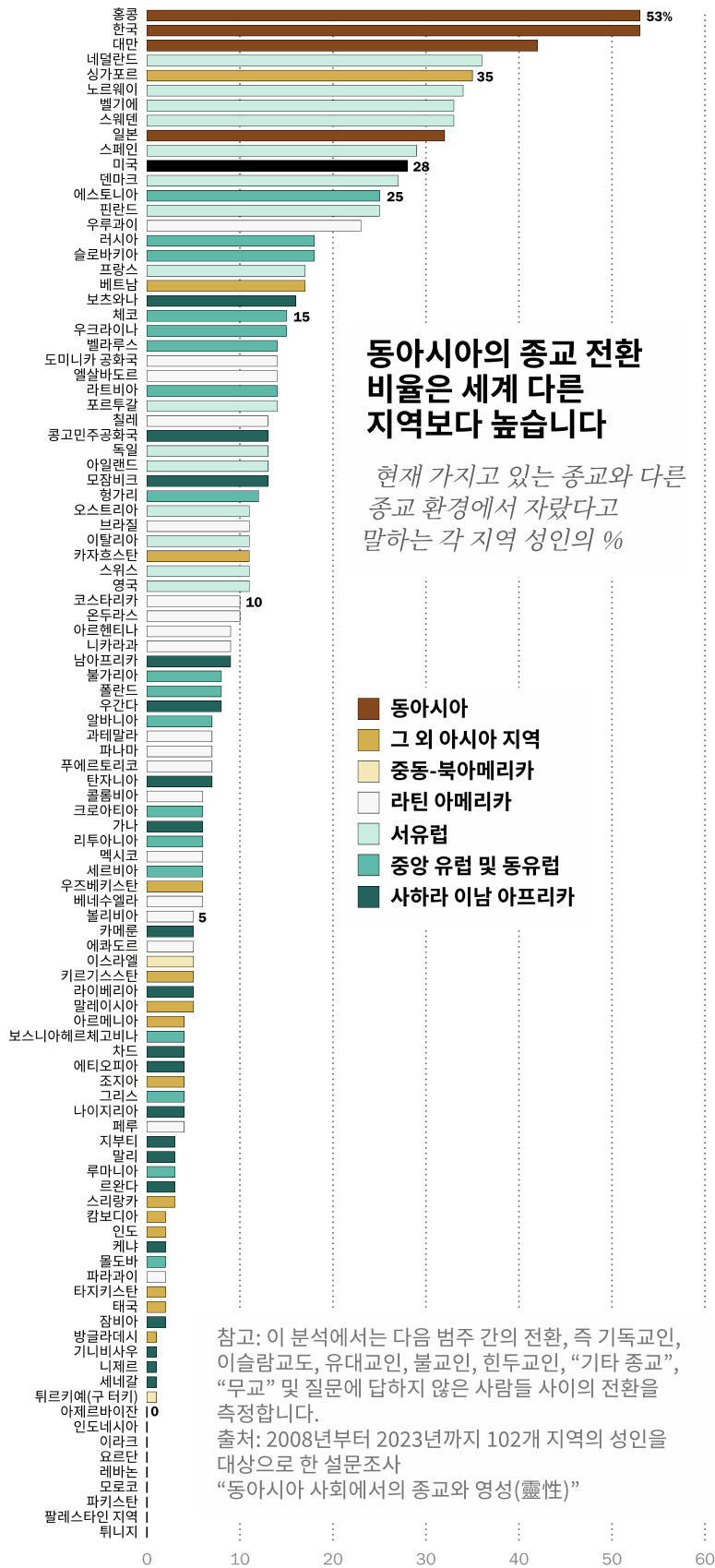
[서유럽 지역 15개 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해당 지역이 [수십 년간의 분단으로 인해](#) 무교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전환율이 40%를 초과하는 곳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가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당사에서 [2023년 여름에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28%는 더 이상 자신이 어린 시절 겪은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등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종교 전환이 훨씬 덜 일반적입니다.³

² 이 분석의 목적에 따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가 아시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코카서스 3개 지역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습니다.

³ 이 분석에서는 다음 범주 간의 전환, 즉 기독교인, 이슬람교도, 유대교인, 불교인, 힌두교인, “기타 종교”, “무교”, 질문에 답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전환을 측정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범주(천주교와 개신교, 개신교의 다양한 종파, 불교 내 다양한 교리 등)를 활용하여 분석한다면 종교 전환으로 간주할 수 있는 비율이 늘어날 것입니다. (예시로, [미국의 종교 전환](#)에 대한 2015년 세부 분석을 읽어보십시오.) 전 세계에 걸쳐 일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세계 주요 종교 전통 수준에서의 전환을 분석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종교 전환 비율은 세계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종교와 다른 종교 환경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각 지역 성인의 %

- 동아시아
- 그 외 아시아 지역
- 중동-북아메리카
- 라틴 아메리카
- 서유럽
- 중앙 유럽 및 동유럽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참고: 이 분석에서는 다음 범주 간의 전환, 즉 기독교인, 이슬람교도, 유대교인, 불교인, 힌두교인, “기타 종교”, “무교” 및 질문에 답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전환을 측정합니다.

출처: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02개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종교와 영성(靈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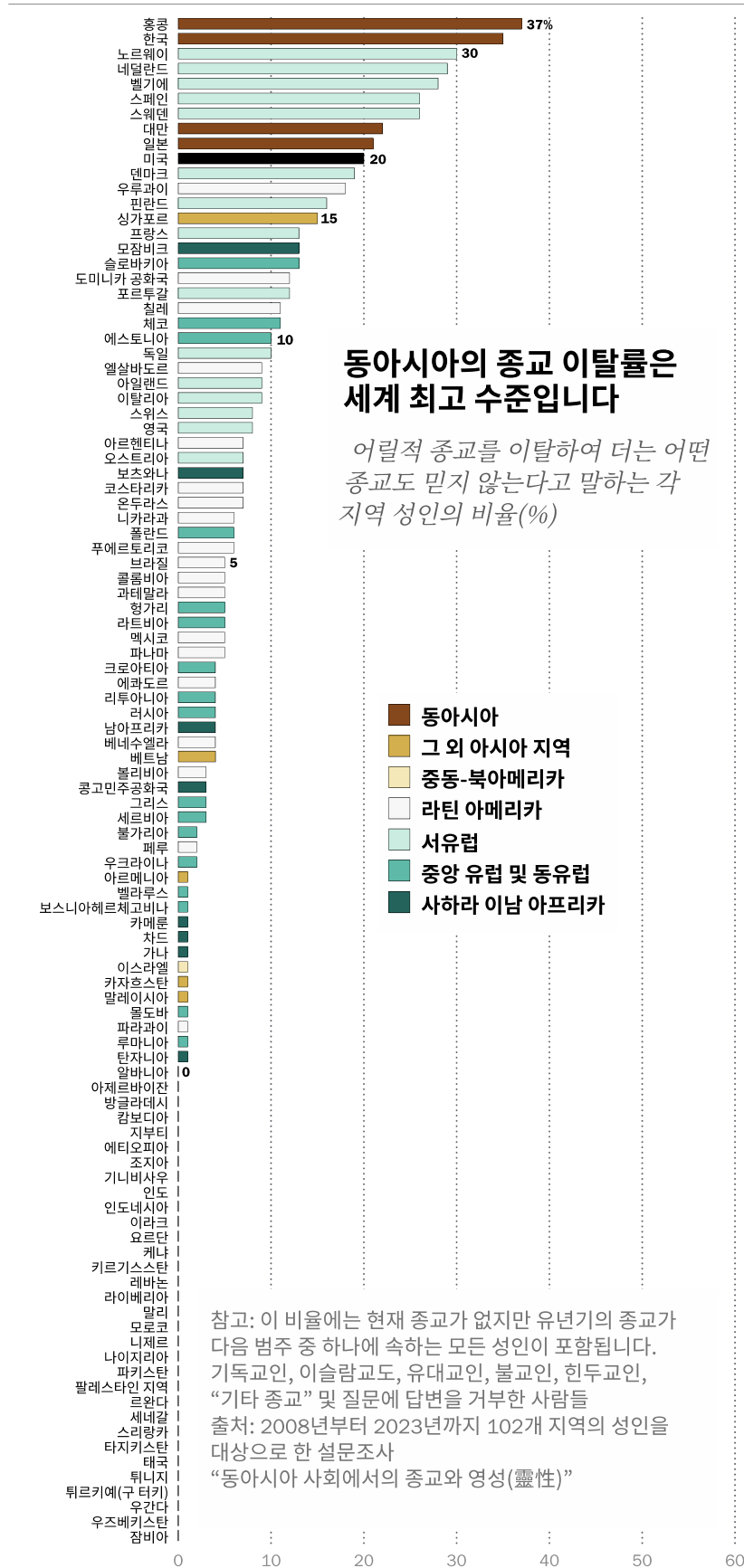
또한 당사는 2008년부터 전 세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동아시아와 베트남 지역의 종교 이탈률을 다른 지역과 비교했습니다.

홍콩(37%)과 한국(35%)은 종교를 믿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더는 종교를 믿지 않는 성인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노르웨이(30%), 네덜란드(29%), 벨기에(28%) 등 여러 서유럽 사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목록의 상단에는 대만(22%) 및 일본(21%)의 두 동아시아 사회가 위치합니다.

중부 및 동유럽,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하여 당사가 지난 수년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략 5% 이하의 성인이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종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5개 지역 중 베트남만이 종교 이탈률이 4%로 낮았습니다.

(102개 사회 및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기에 관한 정보는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인 신념과 실천

Pew Research Center의 종교 설문조사에서는 종종 “종교가 선생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십니까?”라고 묻습니다. 당사에서는 지리적으로 및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삶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역할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로서 이 질문을 이용합니다.

“종교”라는 단어를 일부 아시아 지역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의 복잡성 외에도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종교적으로 소속된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에서 종교가 본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당사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5개 지역에서 종교가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성인은 26%에 불과했으며, 일본의 경우는 단 6%였습니다.⁴ 일부 인근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⁵

해당 지역에서 종교가 본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여 말보다는 영적인 세계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사람들

본인이 다음을 한다고 말하는 각 지역 성인의 비율(%)

	업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꿈에서 또는 다른 형태로 조상의 영혼이 찾아왔다	영상을 해 본 적이 있다	매일 기도한다	종교를 삶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홍콩	76%	16%	22%	13%	11%
일본	16	36	30	19	6
한국	48	40	59	21	16
대만	87	36	34	16	11
베트남	75	42	16	20	26

참고: 어두운 음영은 더 높은 값을 나타냅니다. 꿈에서 조상의 영혼이 찾아왔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함께한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응답자들에게 별도로 질문했습니다.
출처: 2023년 6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아시아 5개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세한 내용은 방법론을 읽어보십시오.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종교와 영성(靈性)”

PEW RESEARCH CENTER

있습니다.⁶있습니다.⁷있습니다.⁸

그러나 종교가 자신의 삶에서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영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⁴ Pew Research Center는 중국 정부의 외국 조사기관에 대한 규제로 인해 중국 내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중국의 세계 가치관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성인의 13%가 종교가 자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보고서 “중국의 종교 측정”을 읽어보십시오.

⁵ 인도에서는 예를 들어, 당사에서 수행한 [인도에서 실시한 2019~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84%가 종교가 자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2022년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6개 사회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성인 대다수가 동일하게 말하며, 싱가포르에서도 성인의 36%가 종교를 자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만 종교에 관한 Center의 연구에서 이 질문에 대한 태도가 동아시아와 다소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부/동유럽 및 서유럽에서의 당사의 2015~201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 34개 지역 성인의 중앙값 20%가 종교가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는 성인의 단 11%만이 종교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87%는 업보를 믿고, 36%는 조상의 영혼이 찾아온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34%는 명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상의 영혼은 오랫동안 동아시아와 인근 베트남에서 의식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조상 숭배는 여전히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모든 지역에서 대략 절반 이상의 성인이 최근 조상을 기리거나 돌보기 위해 음식, 물 또는 음료를 바쳤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불교인과 자신을 종교적 정체성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두드러지는 한 가지 예시로는, 무교인 베트남 성인의 92%는 지난 1년 동안 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사망한 친척과의 이러한 연결이 항상 일방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성인 10명 중 4명은 꿈이나 다른 형태로 조상의 영혼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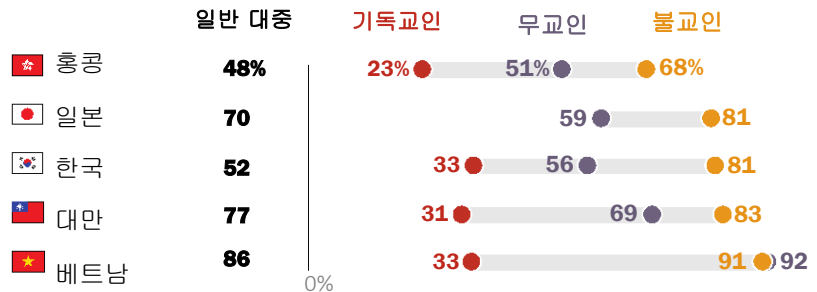
5개 지역 모두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성인은 신 또는 신이나 영혼과 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무교인 성인은 기독교인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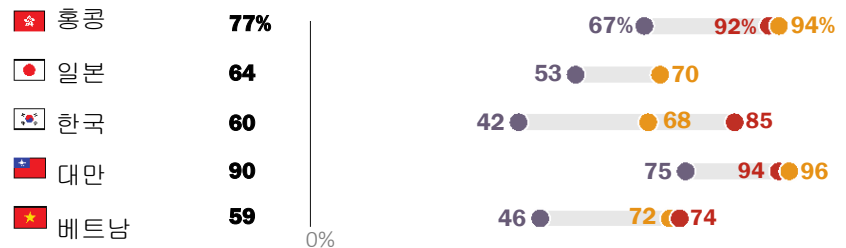
불교인에 비해 신 또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비율이 낮지만, 각 지역의 무교인 성인 10명 중 최소

설문조사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교 성인 중 최소 절반 이상이 최근 조상을 돌보기 위해 음식이나 음료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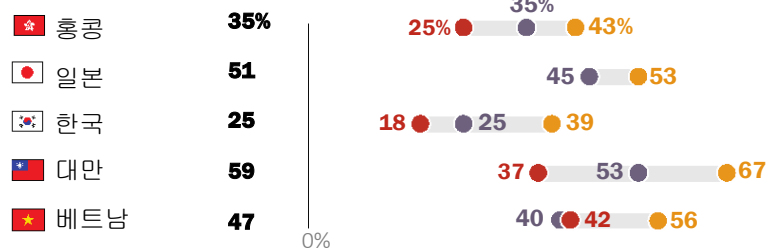
지난 12개월 동안 조상을 기리거나 보살피기 위해 음식, 물, 음료를 바쳤다고 응답한 각 지역 성인의 비율(%)



각 지역에서 신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는 성인의



각 지역에서 산, 강, 나무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는 성인의 비율(%)



참고: 응답자들에게 신을 믿는지, 아니면 세상에 신이나 영혼과 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별도로 질문했습니다. "신"은 특정 종교의 신이나 여신을 언급하지 않고 가능한 한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각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 표본 규모는 분석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출처: 2023년 6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아시아 5개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세한 내용은 방법론을 읽어보십시오.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종교와 영성(靈性)"

PEW RESEARCH CENTER

4명은 이러한 믿음을 내비칩니다. 대만에서는 무종교인들의 4분의 3이 신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상당수의 성인은 또한 자연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영역으로 여깁니다. 대만, 일본, 베트남에서는 성인 중 약 절반 이상이 산, 강, 나무에 영혼(정령)이 있다고 믿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불교인이었던 사람과 평생 불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에는 무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콩 성인의 37%, 한국의 35%, 대만의 22%, 일본의 21%는 어린 시절 불교, 기독교, 도교 등의 종교 환경에서 자랐지만 현재는 더 이상 어떤 종교적 정체성도 없다고 말합니다. (비교가 되는 베트남 성인의 4%만이 종교를 이탈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무교’라고 말하면서도 일부 종교적 신념을 내바치고 일부 전통적인 영적 행위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종교적 소속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종교적인 꼬리표가 중요하거나 할까?와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간단히 답변하면 “그렇다”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의 동아시아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 평생 불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불교인으로 자랐으며 아직도 자신을 불교인라고 생각하는 사람)
- 이전에 불교인이었으며 현재는 무교인 사람(불교인으로 자랐지만 더 이상 어떤 종교적 정체성도 없는 사람)
- 평생 무교로 살아가는 사람(무교 환경에서 자랐으며 여전히 자신을 무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설문조사를 실시한 4개 동아시아 사회(홍콩, 일본, 한국, 대만)에는 세 범주 모두에 충분한 사람들이 있어 각 그룹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역에서 평생 불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교인이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평생 무교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신앙심이 더 깊은 불교인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릴적 불교인으로 살았던 시절의 잔여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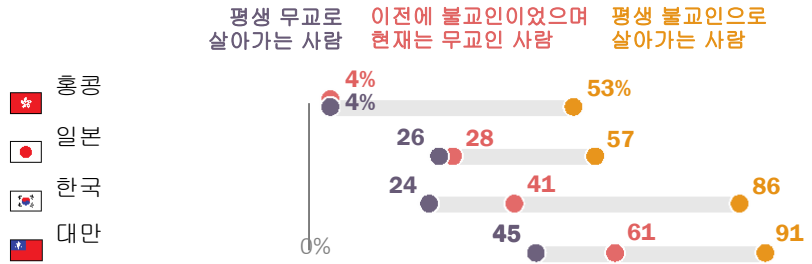
예를 들어, 대만에서 평생 불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교인이었던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사원이나 탑에 간다고 답할 확률이 30% 더 높습니다(91% 대 61%). 또한, 불교인이었던 사람들은 평생 무교로 살아가는 대만인들보다 사원이나 탑을 방문할 가능성이 16포인트 더 높습니다(61% 대 45%).

조상 숭배에 관한 설문조사 질문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세 범주 모두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조상을 기리거나 돌보기 위해 향을 피웠다고 말하지만, 이 활동은 평생 불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흔히 보입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평생 불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 84%가 조상에게 향을 피운 반면, 불교인이었던 사람 중 65%와 평생 무교로 살아가는 사람 중 59%가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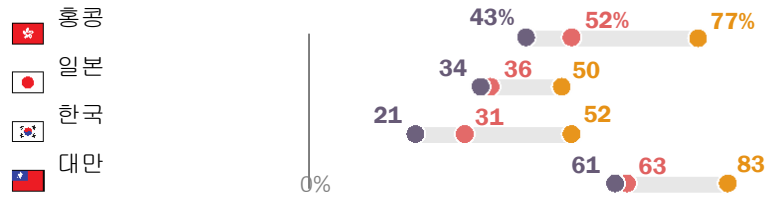
또한, 불교인의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일반적으로 평생 불교인으로 살아가는

동아시아에서는 불교에서 무교로 전환한 사람과 평생 무교로 살아가는 성인 대부분이 최근에 향을 피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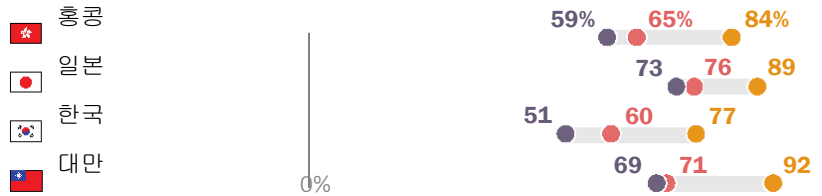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사원이나 탑에 간다고 답한 각 지역 성인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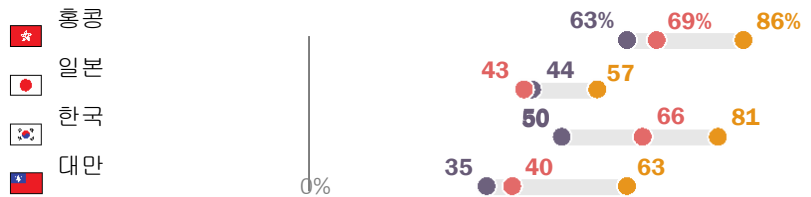
환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각 지역 성인의 비율(%)



지난 12개월 동안 조상을 기리거나 돌보기 위해 향을 피운 각 지역 성인의 비율(%)



불교를 행동을 인도하는 일련의 윤리적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각 지역 성인의 비율(%)



출처: 2023년 6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아시아 5개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세한 내용은 방법론을 읽어보십시오.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종교와 영성(靈性)”

PEW RESEARCH CENTER

사람이라기보다는 평생 무교로 살아가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일본의 평생 불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다수(57%)는 불교를 “행동을 인도하는 일련의 윤리적 가르침이다”로 보는 반면 보다 적은 비율의 불교인이었던 사람(43%) 및 평생 무교로 살아가는 사람(44%)들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간단히 줄이자면, 사람들이 현재의 종교적 소속 및 어린 시절의 소속을 설명하는 방식은 본인의 종교적 신념 및 실천 수준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 이 보고서의 중요한 결과

- 설문조사 대상인 동아시아 4개 사회 각각의 성인 중 최소 5분의 1과 인근 베트남 성인의 79%가 조상의 영혼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5장은 조상과의 교감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 지역 전반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종교적 정체성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하나의 종교적 신념이나 철학에 따른 “삶의 방식”과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독교인의 34%는 불교인의 삶의 방식에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한국 불교인의 26%는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2장에서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종교와 여러 전통에 대한 사람들의 친밀감에 대해서 논합니다.)
- 모든 종교 집단에 속한 성인들 대다수는 불교를 “행동을 인도하는 일련의 윤리적 가르침” “우리가 속한 문화” 및 “따르기로 선택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2장에서는 불교인들이 “진정한” 불교인이 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믿음과 의식 외에도, 설문 응답자들이 불교를 정의하는 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룹니다.)
- 모든 지역 전반에 걸쳐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종교를 사회의 긍정적인 힘으로 여깁니다. (6장에서는 종교와 사회의 교차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결과 요약본은 원본 영어 버전에서 번역되었습니다.